

“어차피 아이가 첫아이라면 아이 돌보는 일이 어설프기는 얼마나 아파나 마찬가지로 아니겠어요?”

슬 기(7세)와 바우(5세) 아빠 이은재 씨가 첫딸을 낳고 전적으로 육아를 맡을 당시엔 이런 생각으로 시작했다고 한다. 우리 사회에서 엄마가 아닌 아빠가 아이를 전적으로 맡아 키운다는 건 낯설고 신기한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다. 부인은 직장을 가지고 있었고, 신학대학원을 마치고 교육전도 사 일을 보던 슬기 아빠는 당시 새로운 일을 준비하며 논문을 쓰려던 참이라, 1년간 ‘책임지고’ 육아를 맡아야만 했다. 이런 상황이 남편과 부인의 역할을 서로 바꾸어 이은재 씨로 하여금 엄마노릇과 주부노릇을 하도록 만든 계기가 되었다. 이때부터 1년간 슬기 아빠의 아이기르기와 살림살이가 시작됐다.

부인이 출근하고 나면 설거지와 청소를 하고 분유는 설명서에 적힌 대로 하루 다섯번씩 먹였다. 12시쯤 되면 낮잠을 재웠는데 이때에는 꼭 자장가를 불러주었고, 2시간쯤 낮잠을 자는 동안 빨래를 했다. 똥기저귀는 날마다 삶았다. 갓난아기들의 오줌 기저귀는 그냥 물에 행궈내기만 해도 된다는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 날마다 비누로 벽벽 치대 빨았다. 슬기가 깨면

놀이주었고 간식을 한번 먹이면 부인이 돌아왔다.

백일이 지나면서 점심 먹은 뒤엔 외출시간이 되었다. 슬기 아빠는 슬기를 여러 모임에 데리고 다녔다. 멜빵에 딸을 앉혀서 어깨띠를 두른 다음, 한손에는 기저귀 가방을, 한손에 자신의 가방을 들고서 거리에 나가면 특히 여자들이 구경거리가 생겼다는 듯이 쳐다보는데 꼭 한마디씩 묻는 말, “엄마는 어디가고 아빠랑 나왔니?” 그러면 슬기 아빠는 “엄마, 공부하러 갔지?”라고 먼저 얘기한다. 왜냐하면 슬기는

1년간 전적으로 맡았던 아이기르기와 살림살이. 오줌 기저귀는 그냥 물에 행궈도 된다는 걸 알기까진 비누로 벽벽 치대 빨았다. 외출시엔 한손엔 기저귀 가방을, 한손엔 서류가방을 들고서 어느 모임에든 스스럼없이 갔다. 그래서인지 슬기는 씩씩하고 사람을 좋아했다.

이미 제 엄마나 아빠가 모두 공부를 하러 나가는 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슬기 아빠는 언제나 슬기를 싸안고는 교회며 공부하는 모임에 스스럼없이 갔다. 그래서인지 슬기는 어려서부터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잘 다녔을 뿐 아니라 씩씩하고 사람을 픽 좋아했다.

첫 아이를 기르는 엄마들이 육아책을 많이 본다고 하지만 슬기 아빠는 첫딸을 낳기 전부터 그저 부인과 함께 “우리 아이를 어떻게 기를까”에 대해 이야기를 했을 뿐이라고 한다. 결론은 아이를 존중하고 어떤 경우에도 부모의 의사를 강요하지 않는 것.

슬기를 데리고 나갈 땐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는 자잘한 일들이 시간을 꽤 잡아 먹는데 슬기 아빠는 아무리 시간에 쫓기더라도 재촉하지 않는다. 슬기가 체가 하겠다고 한번 말하면 하도록 두고 기다려준

• **슬기와 바우 아빠 이은재 씨 (교역자)**

“슬기와 난 똑같은 학생이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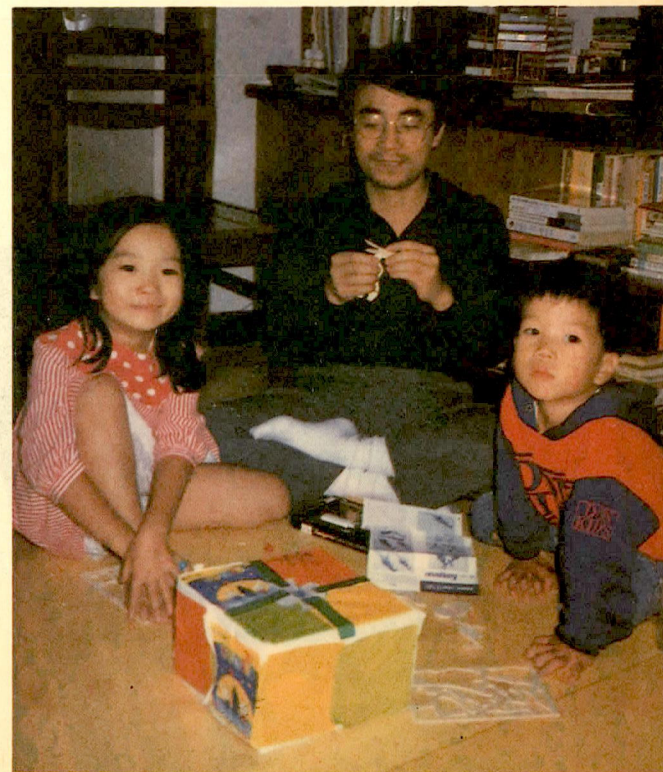
강한 편이다.

“슬기를 키우면서 참 많은 걸 느끼고 배웠어요. 슬기가 뭔가를 새로 배울 때마다 나도 함께 무언가를 새롭게 배웠어요. 슬기와 나는 똑같은 학생이었습니다.”

슬기 아빠는 슬기를 키우면서 사랑이 뭐고, 산다는 게 뭔지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다고 한다. “아이스러움을 찾는 건 어른이 창조성을 찾는 것”이란 점도 새롭게 깨달은 사실. 전보다 훨씬 쉽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남들과 함께 웃고 울 수 있게 되었고 ‘남자라는 한계’를 벗어나 사랑한다는 것을 더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이유로 그는 우리 사회가 아이기르는 일에 아빠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변화해야 한다고 굳게 믿는다.

“당당하고 건강하게 자라는 슬기를 통해 날마다 나의 여성상을 개발하고 새롭게 태어난다”는 슬기 아빠. 한번은 그가



▲ 씩씩하고 자기주장이 강한 딸 슬기와 아들 바우. 이은재 씨는 이들과 놀이하는 저녁시간이 가장 즐겁다고 한다.

“아빠는 슬기가 참 좋아”하니 어디서 그런 말을 배웠는지 아빠를 꼭 안으면서 슬기가

말했다. “나는 아빠가 참 자랑스러워요.”